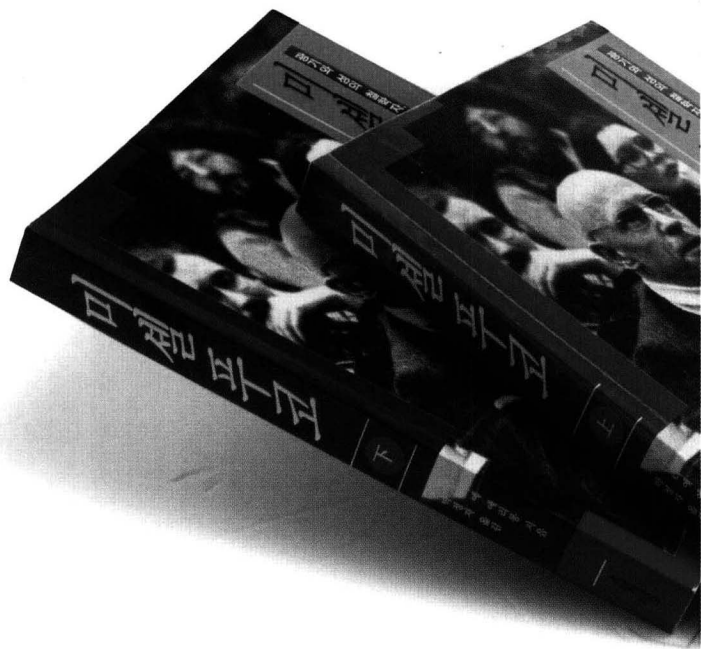


말인가. 사람들은 저마다의 비례곡선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살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잉여' 라는 말과의 뜻하지 않은 조
우로 이 팽팽한 비례곡선을 붙잡고 있던 악력握力이 풀렸다. 그리
고 나는 조금 게을러졌다. 노력한 만큼 받아야 할 대가만이 의미
있는 건 아니었다. 대가로는 환원되지 않는 가치가 있었다. 대가로
돌려받기에는 아까운 꿈도 있었다.

미셀 푸코가 나의 '고니(鵠)' 가 된 것은 내가 이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던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과연 푸코는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쓴 저술가이자, 아마추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행정의 달인이었으며, 또한 거리의 투사였다. 나는 완전히 푸코의
삶에 매료되었다. 20세기 철학의 기념비적 인물의 삶을 '이루지
못할 것이 뻔한' 꿈으로, 내 삶의 모델로 가슴에 품으면서 내 일상
은 역설적으로 한결 여유로워졌다. 쫓아가다 보면 근처까지는 가
겠지. 어쨌든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그런 여행에
서 조금해질 이유는 없었다.

디디에 에리봉의 《미셀 푸코》(상,하)는 푸코와 그의 시대
가 나는 대화의 기록이다. 문학을 공부한답시고 때론 그저 들춰보
고 때론 악착같이 '썩먹어' 보려고 했던 그 이름들, 조르주 칸길
렘, 장 폴 사르트르, 필립 아리에스, 롤랑 바르트, 자크 라캉, 질 들
뢰즈, 그리고 미셀 푸코가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낸 사람들' 이었다
는 사실 자체가 황홀했다. 그건 마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진지하고 열렬하게 사모한 —역시 사랑한 만큼 사랑받으리라는
환상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좋아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가수 박남정이 변진섭과 친한 친구라는 뉴
스를 접했을 때의 그 신비로움이랄까, 두근거림이랄까, 그런 감정
과도 같았다. 유명한 사람들의 우정, 경쟁, 사랑, 질투란 그런 것이



푸코,

내 삶의 '고니'

각각류목刻鵠類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분명 고니(鵠)를 조각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여 집오리(鶩)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는 '근
칙謹飭한 사람을 본받으려 하면 실패하더라도 선인善人은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리고 보면 이루지 못한 것
에 대한 미련은 우리 조상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나 보다. 어쨌든 집
오리를 만들었으니까, 고니를 꿈꾸지 않았던들 집오리조차 얻지
못했을 테니까.

학창 시절의 나는 고지식했다. 나는 철저히 '노력한 만
큼 이룬다' 주의자였다. 이루지도 못할 것이 뻔한 꿈을 꾸는 것이
나 맘 흘리지 않고 횡재하길 바라는 마음이나 정직하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애쓴 만큼 얻고 배운 만큼 받는다는데 뭐가 문제란



다. 푸코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아니었다. 푸코를 ‘별들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 속에서 되살려 놓은 《미셸 푸코》는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드문 평전이였다.

몇 년 전 김용석 교수의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친 대목, 즉 서양 사상가들이 얼마나 패러다임의 종적 사유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구절이 새삼 떠올랐다. 또 얼마 전 소규모로 열린 한 포럼에서 한양대 이상욱 교수가 ‘천재’에 관한 일반의 상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네트워킹’의 능력이야말로 천재성을 이루는 관건임을 강조했던 일이 기억난다. 뉴턴은 공원 벤치에 앉아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중력’이라는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법칙을 발명해 낸 것이 아니었다. 푸코는 르네 샤르의 “당신의 남과 다름을 계발하라”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계발’, 즉 ‘노력’에 의해 얻어진 ‘다름’이야말로 의미 없는 돌출행동과, 진습傳襲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천재성을 구별하는 기준이리라. 뉴턴은, 그리고 푸코는, 한가로이 벤치에 앉아 있을 틈 없이, 쉼 없이 읽고 생각하고 쓰고 고치면서 고통과 희열에 찬 하루하루를 보냈다. 경이로웠다.

“어떤 시기를 다루건 나는 푸코가 활동하던 그 시기의 지적 풍토를 복원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나의 철학이 정신 단련에 몰두하는 고독한 정신의 새로운 개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론적, 체계적, 정치적 공간과의 참조 없이 하나의 지적 기도와 그 발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미셸 푸코》 서문의 한 구절만큼 “집합적인 역사서를 지향”했다는 저자 디디에 에리봉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문장도 없다. 디디에 에리봉은 푸코를 ‘관계’ 속에 매몰시키지 않으면서도

‘관계’ 속에서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고, 나에게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기를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한 푸코는 조르주 뒤메질이 회고하듯 수시로 가면을 바꿔가며 살았다. 푸코는 평전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기에 참으로 버거운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일반적 전기의 주인공들은 성격 변화가 적은 평면적 인물이자, 투사면 투사 사상이면 사상가라는 레메르를 붙일 수 있는 전형적 인물이 아니었던가. 삶의 국면 국면마다 “자기가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 주는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미로로 밀어 넣었던 푸코의 삶이 익숙한 형식의 평전과 화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터였다.

그럼에도 푸코가 갈아치운 수없이 많은 가면 하나하나에 역사와 생명이 깃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디디에 에리봉의 덕택이다. 그는 평전의 주인공이 보일 것이라 기대되는 ‘한결같음’에 대한 환상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노고가 이채를 떨 수 있었던 것은 푸코의 그 모든 가면 밑에 어떤 본질적인 인간, 즉 ‘하나의 푸코’가 있으리라는 상식적 기대에 그가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푸코, 행정가 푸코, 사상가 푸코, 교수 푸코, 투사 푸코, 그리고 동성연애자 푸코. 푸코는 매순간 흐르고 있었고 디디에 에리봉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흐름, 운동, 역동성 자체였다. 변화와 운동은 ‘하나의 푸코’라는 운동의 담지체를 요구하지 않는 법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혹은 폭포처럼. *******



이 글을 쓴 손유경은 문화기획집단 〈퍼슨웹〉 기획위원으로 있으며 《대담한 책읽기》(2004), 《인텔리겐차》(2002)의 공저자다.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외국어대 강사로 있다.

《미셸 푸코》(상, 하)
디디에 에리봉 지음 | 박정자 옮김 | 시각과언어 | 각권 352쪽 | 각권 값 9,500원